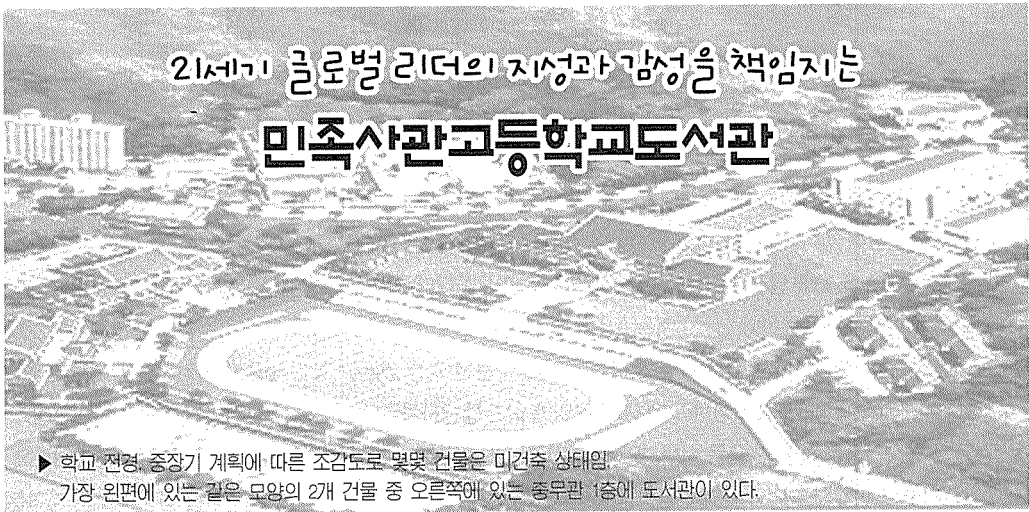


도서관 탐방



▶ 학교 전경. 중장기 계획에 따른 조감도로 몇몇 건물은 미건축 상태임. 가장 왼편에 있는 길은 모양의 2개 건물 중 오른쪽에 있는 총무관 1층에 도서관이 있다.

지난 2월 SK텔레콤이 총 5곳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도서관 리모델링(학교별 5천만원) 해주는 “신난대! 산뜻한 학교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첫 주에 선정된 도서관이 바로 민족사관고등학교도서관이다. 총 5개 학교 중 제일 처음 선정된 곳이라는 점,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호기심, 전반적으로 힘든 학교도서관계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서교사의 수고에 대한 감사 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 탐방팀은 강원도 횡성을 다녀왔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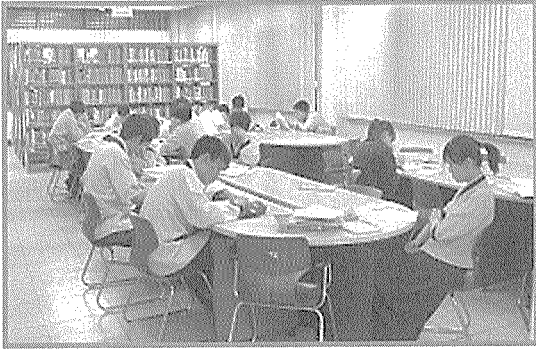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원주를 지나 조금 가면 새말인터체인지가 나오고, 거기서 안흥방면으로 8km 더 들어가다보면 오른편 언덕에 파스퇴르 우유 공장과 나란히 자리잡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 교정이 한 눈에 들어온다(총면적 38만 5천평으로 단일 고등학교로 국내 최대 규모임).

1996년 개교한 민사고의 현재 재학생은 274명이고 교사 수는 64명이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교무실과 교실이 이 학교에는 없다.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5명 미만인데 교실이 필요 있겠는가. 수업은 교사의 연구실에서 15명 이내로 토론식으로 그것도 영어로 진행된다. 모든 건물은 기와지붕으로 되어있고 교복은 개량한복이요 전통 무예와 국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민족혼’을 강조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니.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외국 유학을 간판으로 국내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보겠다는 알뜰한 공명심을 가진 학생은 민사고 출신이 아니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만이 민사고 학생 자격이 있단다. 글로벌 경쟁에서 영어구사력은 필수이고, 최선의 방법은 ‘영어의 일상화’라는 것. 즉 ‘민족사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도 ‘실사구시’ 하는 학문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학교측은 설명한다.

도서관은 학생들 행동 반경의 중심에 위치한 총무관 1층에 있어 하루종일 붐빈다. 개별 교실이 없으니 강의가 없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은 당연지사.

1일 평균 이용자 130명 1일 대출책수 25책이다. 1인당 10책(단행본 5권, 잡지 3권, 멀티미디어자료 2점)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주일이고 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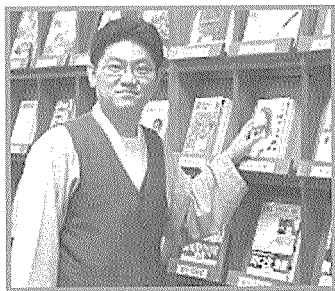


〈도서관 좌석을 가득메운 학생들. 200평, 64석, 2만1천5백권의 장서. 1일 이용자수 130명, 연간자료구입비 4천5백만원. 바로 이곳에서 21세기 글로벌 리더들의 지성과 감성이 자라난다.〉

더 연장 가능. 주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한다. 휴관일은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1999년 8월부터 6년째 민사고 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명 사서(사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 도서관 예산이 6천만원인데 그 중에 4

천 5백만원이 자료구입하는데 쓰여집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작은 전문대학의 수준과 맞먹습니다. 수준 높은 고가의 자료들도 많이 필




김동명 사서

요하고, 교과 과정 자체가 전문 분야에 관한 심화탐구 및 프로젝트 학습, 개인연구(Individual Research) 과정 등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현재 좌석이 60석 정도인데 적어도 500명 수용의 도서관은 되어야 교사 및 학생의 정보요구와 다양한 정보자원을 매개하는 제대로 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학교 예산상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학교 운영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및 학교시설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활동이 저조한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도서관 입구 벽에는 이번 2월에 있었던 리모델링 기념 기증패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적혀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난다! 산뜻한 학교만들기”에 1차 수혜학교로 선정되어 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기증합니다. 2004년 3월 22일. SK Telecom’. 선정되기까지 이벤트 주최측 홈페이지에 가서 민사고도서관 리모델링을 기원한 사람이 무려 4천여명나 되었다고 한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식구, 친구, 동료가 몽땅 동원되었을터인데 이게 어디 거저 되겠는가. 김동명 사서교사의 지휘 하에 학생자치위원회, 도서관 학생들을 중심으로 거의 17대 대선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 움직임 끝에 도서관 전체는 아니지만, 입구 쪽의 천정, 조명, 벽, 바닥 등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오래된 블라인드도 새것으로 교체되어 한결 산뜻해졌다.

한 두 방울 흘날리던 봄비가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는 교정의 푸른 잔디를 흠뻑 적실만큼 그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날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계획된 예산이 하루 아침에 삭감되고 임용의 기회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학교도서관의 척박한 현실에 마음 한 구석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듯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가고 있는 전국 곳곳의 사서교사들과 그들이 가꾸어놓은 공간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 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한 앞으로는 좀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글 : 박경아 기획 · 홍보팀장, 사진 : 심효정]